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인도 기독 단체, 기독교인 폭력 급증에 조사 촉구



인도의 기독교 권익 보호 단체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이는 인도 내 기독교인들이 “비극적인 폭력, 유혈 사태, 수십 개의 교회 파괴”와 같은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기독교포럼(The United Christian Forum, UCF)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A.C. 마이클(A.C. Michael)은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2014년 집권한 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단체 측은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 실제 폭력 규모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종파적 폭력 사건에 대한 데이터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마니푸르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쿠키(Kuki) 부족과 메이테이(Meitei)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20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연합기독교포럼은 또한 사법 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2022년 인도 대법원에 제출된 반기독교 자경단 단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는 첫 심리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마이클은 모디 총리에게 “인도에서 증가하는 기독교 소수자 박해 사건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하며, 사법적 조치 지연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연합기독교포럼의 요구는 인도의 종교적 소수자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부각하며, 종교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의 세속적인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세계 박해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모디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와 사역 단체들에 대한 조치로 인해, 인도는 2024년에 “제한 국가(restricted nation)”로 재분류됐다.

힌두교도에게 다른 종교를 고려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이 인도의 여러 주에서 통과됐고, 이와 유사한 연방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지지받고 있다. 한 보고서는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 힌두민족주의 단체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아 힌두교로 강제 개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독교 제한 조치와 수많은 목회자들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에 임하고 있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브리서 13:12,14-15)**

하나님, 모디 총리와 그가 속한 정당이 인도를 집권한 후,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해지는 중에도 교회가 오히려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런 박해 상황을 조사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독교와 사역 단체들을 규제하며 법 개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악한 자의 간계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도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을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인도 교회가 환란 중에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을 열방에 힘 있게 외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콜롬비아, 복음주의 목회자 일가족 총격 피살

콜롬비아에서 한 복음주의 목회자와 그의 가족이 주일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세계기독교연대(CSW)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총격범은 목회자 가정의 주일예배 후 식사 교제를 나누던 장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침입해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다. 사망한 말론 로라(43) 목사는 평화의 왕자 빌라 파라과이교회 소속의 교단 지도자로 콜롬비아 전역 30여 개 도시와 시골 교회를 방문하며 감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라 목사의 피살 소식에 현지 교회는 큰 충격을 받으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로디안 로드리게스 목사와 켈리 메디나 부부의 집이 이웃에 의해 불에 타는 등 기독교 박해가 고조되고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라(요한복음 12:24)**

하나님, 형제 된 콜롬비아 교회의 박해와 순교 소식 앞에 마음이 아프고 떨리오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귀한 사역자요, 가장이며 리더인 목회자의 순교 소식으로 인해 콜롬비아 교회가 위축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가족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슬픔을 이기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미움과 훼방을 능히 이기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콜롬비아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 티베트 강진으로 95명 사망·130명 부상·피해규모 확대 우려

7일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5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시짱자치구의 제2도시인 르카찌(시가체)시 인민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조사 결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르카찌시 덩르현 지진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며 “가옥 손실은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파악된 사망자 숫자가 이날 오전 9명에서 몇 시간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어난 데다 피해 지역 가옥 1천여 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진은 7일 오전 9시 5분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인접한 시짱자치구(북위 28.50도·동경 87.45도)에서 발생했다. 중국 지진당국은 지진 규모가 6.8이었다고 발표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1,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규모 7.0이 관측됐다고 했다. 르카찌시 정부는 이번 지진이 덩르현의 취귀향 취뤄향 등 14개 향진(鄉鎮·중국 농촌의 기초 행정 단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원 지진대응재난구조지휘부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국가 지진 3급 응급 경보를 발령하고 구조·대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편 33:6,8-9)**

하나님, 티베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점점 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주께 고하며 구조가 필요한 자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한순간에 자신의 터와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구원의 길이 없는 헛된 우상을 따르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크심과 권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신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독교 예배 장소 의무 등록 제안...종교자유 침해 우려



스리랑카 정부가 기존 기독교 예배 장소에 대한 의무 등록을 제안, 이 조치로 불교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 교회를 겨냥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리랑카 전국 기독교 복음주의 연합(National Christian Evangelical Alliance of Sri Lanka, NCEASL)은 이러한 제안이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4년 기존 기독교 예배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무 등록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2022년에 발표된 새로운 종교 시설, 예배 장소, 기도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NCEASL 종교자유위원회 마이크 가브리엘(Mike Gabriel) 회장은 “2022년의 규정과 이번 제안 모두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특히 독립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불확실성과 종교자유 침해에 직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회들이 종종 경찰과 지역 당국으로부터 등록을 요구받거나, 교회 활동과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스리랑카 헌법 제10조와 제14조 1항 e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2조에서 명시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NCEASL은 지적했다.

가브리엘은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내 예배 장소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법, 규정, 또는 내각 각서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만약 등록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간소화된 자발적 절차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3월, 불교 사무부 장관인 비두라 위크라마나야케(Vidura Wickramanayake)는 개종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장소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밝혔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2003년과 2017년 판결에서 불교가 헌법적으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개종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다.

스리랑카 헌법은 불교가 국가 종교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며, 정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인구 구성은 불교 70.2%, 힌두교 12.6%, 이슬람교 9.7%, 기독교 7.4%로, 이는 2012년 마지막 인구 조사에 따른 것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누가복음 18:7-8)**

하나님, 헌법적으로 불교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스리랑카 정부가 제도적으로 계속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옵소서. 주여, 이러한 때 스리랑카의 교회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피 값으로 택하신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속히 보이시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진리를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분명히 일어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케 하옵소서.

### ▲ 군부 쿠데타 3년, 미얀마 의사간호사 “생계 위해 매춘”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른 미얀마에서 생존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마저 매춘을 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얀마 내전이 4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화이트칼라 여성들이 ‘생계형 매춘’이라는 절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의 내전은 국가 경제를 폐허로 만들어 물가 상승, 통화 가치 하락, 전력 부족 등으로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 쿠데타 이후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의류·섬유 공장과 같은 주요 일자리도 사라졌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1년 미얀마에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산층이 증가했지만, 군사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현재 중산층은 5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의사 수(29)는 “소아과 의사가 돼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쿠데타와 가족의 재정 상황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건 내가 꿈꿨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예레미야애가 5:21)**

하나님, 넘어졌으나 돕는 자가 없고 놀랍도록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는 미얀마의 극심한 환난을 감찰하소서. 정치경제의 파탄과 혼돈 가운데 생존을 위한 매춘에까지 이른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사 온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께로 돌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군부정권을 꾸짖으사 두려우신 하나님께 순복케 하소서. 주님, 무엇보다 강포와 황폐함 속에서 예수교회를 쫓피우시며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미얀마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 수단, 콜레라 4만 7,365건 발생...1,235명 사망

수단에서 콜레라 발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달 16일까지 4만 7,365건 이상의 사례와 1,23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게다레프, 카살라, 나일강 주에서 콜레라 발병이 선언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단의 이상의 콜레라 사례가 보고됐다. 이로 인해 약 1,235명의 사상자와 2.6%의 치사율, 18개 주 중 11개 주 81개 지역에서 4만 7,365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 기준인 1% 미만을 초과한 수치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보고된 콜레라 사례가 3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은 아지라(1만 1,179건), 알 카다리프(9,745건), 카살라(7,364건), 화이트 나일(6,646건), 리버 나일(5,824건) 순이었다. 콜레라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발병 사례의 70% 이상이 영유아와 50세 이하 성인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사망률이 14.5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69세와 20-29세가 각각 12.09%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3-14)**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내전 가운데 콜레라의 창궐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단을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시설과 약품 및 의료진을 공급하여 주시고 식수 위생 인프라가 구축되어 무너진 공중보건의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수단의 영혼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고통하는 육체와 마음을 고치시는 구원의 은혜가 수단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잔악한 멕시코 카르텔...“노숙인과 동물에 신종마약 실험”



멕시코 모처에 비밀 실험실을 운영하는 마약 밀매 카르텔은 마약 제조법 개발 과정에서 펜타닐 계통 신종 마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토끼와 닭 같은 동물에 약물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서 접촉한 6명의 마약 제조자와 2명의 미국 대사관 관계자 설명을 보면 혼합 약물을 동물에 주사한 뒤 90초 이상 살아있다면 ‘미국에 판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약한 마약’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멕시코 마약 당국의 실험

단속 과정에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미국과 멕시코 당국의 판단이다. 카르텔 단원이 노숙인 캠프를 찾아 “혼합물을 맞으면 30달러를 주겠다”며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페드로 로페스 카마초는 “여러 번 약물 주입을 자원한 적 있다”며 “그들(카르텔 단원)이 약물 반응을 살펴며 효과를 가능하는데, 때론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마약 제조자는 “약물을 투입한 닭이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죽으면 그 약물은 제대로 합성된 것”이라며 “죽지 않거나 죽는 데 오래 걸리면, 우리는 동물 진정제인 자일라진(xylazine)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자일라진은 최근 미국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기존 마약에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한 동물용 의약품이다.

현지에서는 해당 합성 마약을 ‘트랑크’(tranq)라고 부른다. 미국 마약 연구원들은 ‘더 이상하고 더 지저분한’ 펜타닐 증가 현상이 관찰된다면서, 미국에서 수백 개의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약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처로 지목되는 중국에서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약 밀매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과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매우 위험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르텔은 이 과정에서 때론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일명 ‘요리사’로 고용해 마약 합성을 종용한다고 한다. 한 ‘요리사’는 “이곳엔 은퇴가 없다”며 “일 아니면 죽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로마서 13:10,12)**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문제를 해결코자 여러 국가에서 나서 보지만 오히려 더 악랄하게 죄를 짓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밤이 깊고 공의로 심판하실 낮이 가까운 이때 멕시코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을 깨달아 이웃에게 악을 행한 죄에서 돌이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교회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모잠비크, 선거 후 불안으로 난민 급증

모잠비크의 선거 후 불안으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웨이 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말라위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약 2,000명이 말라위로 피난했으며, 이웃 에스와티니아에도 1,000명이 추가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난민기구는 급증하는 난민과 그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말라위로 피신한 모잠비크 주민들은 마을 공격과 약탈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전했다. 많은 피난민이 먼 거리를 걸어가거나 사이어 강을 건너 안전한 곳에 도착했으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남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찬사 카파야는 “우리는 폭력 사태로 인해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하는 모잠비크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난민과 민간인들은 생계를 잃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는 등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8-10)**

하나님, 선거 후 마을 공격과 약탈 등의 폭력사태로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나게 된 모잠비크를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할 만큼 무너진 나라의 질서와 치안을 바로 세워주시고, 혼란한 정국을 틈타 악한 정욕과 분노로 무고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치 않게 하소서. 피난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환난 때의 요새이신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케 하사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맞보아 알게 하옵소서. 실향민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 머리 돌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영혼의 양식과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사 피난길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 ▲ LA 산불 키우는 ‘악마의 바람’...하루에 여의도 3배 삼켜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의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리는 돌풍을 타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LA 일대에서 불고 있는 국지성 돌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샌타에나’로 불리는 이 강풍은 인근 네바다주와 유타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으로, 가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터져 나온 강풍은 거의 허리케인급 속도로 부는 데다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린다. 앞서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LA 일대에 분 ‘악마의 바람’으로 인해 번진 산불로 주민 1만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약 5.1km<sup>2</sup>였던 팰리세이즈 산불의 피해 면적은 저녁 6시 30분께에는 약 12.14km<sup>2</sup>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 4.5km<sup>2</sup>의 3배에 육박하는 크기다. 소방 당국은 이날 밤 기준 주민 3만여 명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으며 건물 1만 3천여 채가 화재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21:11,28)**

하나님, 미국 LA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퍼져가는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거센 바람 하나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의 연약함을 이 땅 영혼들이 깨달아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게 하옵소서. 미국의 교회가 이러한 소식 앞에 세상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더욱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케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